

1가구 2차량 한대는 홀수, 한대는 짝수로

# 홀짝제 번호판 변경 급증

## 광주 2배나 늘어

지난 15일 공공기관 승용차 '홀짝제'(2부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광주 지역 일선 구청에서 자동차 등록번호를 바꾸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자동차 번호 변경 급증의 주된 이유로는 1가구 2차량을 갖고 있는 공무원 등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홀짝제 이행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차량 번호를 홀수와 짝수로 분리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때문에 에너지 절약을 위한 홀짝제의 취지가 퇴색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6일 광주지역 5개 일선 구청에 따르면 공공기관 승용차 '홀짝제' 시행을 전후한 일주일(7일~15일, 주말·휴일 제외)동안 구청에서 처리한 자동차 등록번호 변경 건수는 모두 47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6월 2일 부터 11일까지 일주일동안 변경된 210건에 비해 무려 2.3배(265%)나 늘어난 수치다.

구청별로는 동구 37건(지난달 2일~7일 11건)를 비롯한 ▲서구 88건(“ 57건) ▲남구 113건(“ 62건) ▲북구 160건(“ 63건) ▲광산구 77건(“ 17건) 등이다.

등록번호 변경이 급증한 이유는 홀짝제 시행되면서 차량 번호 끝자리가 홀수이면 홀수일, 짝수이면 짝수일에만 운행할 수 있어 이를 피하기 위한 변경 신청이 늘었기 때문이다. 등록번호 끝자리 숫자의 홀짝이 같은 차를 2대 이상 소유하고 있는 공무원 등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이용 편의를 위해 등록번호 끝자리를 홀수와 짝수로 변경하고 있다.

현행 자동차등록규칙(제29조 변경 등록신청)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하거나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별로 등록번호의 끝자리 숫자를 바꾸거나 짝수·홀수를 다르게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광주 모 구청 관계자는 “최근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차량 등

등록번호 변경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며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이번 자동차 등록번호 변경의 대부분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종사자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 것은, 유가 급등에 따른 정부의 에너지 절약 대책에 반한다는 것이다. 주민 정모(31)씨는 “공무원들의 홀짝제 참여는 자신들은 불편하겠지만 고유가 시대에 솔선수범하는 모습으로 비쳐 보기가 좋았다”며 “하지만 편법을 쓰는 공무원들이 계속 늘 경우 홀짝제 취지가 퇴색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지적했다.

공무원 문모(39)씨는 “출장이 잦고 자녀의 등·하교길을 책임져야할 형편이다. 최근 차량 등록번호 변경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며 “근무 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으로 제도시행을 하다 보니 이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말해 입장 차이를 보였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보수도 진보도 독도 하나만 있다 교총도 전교조도



광주기독교교단협의회(회장 강상원 목사)가 16일 오후 광주제일교 교정 안에 있는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탑 앞에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교과서 명기와 관련,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일본 정부를 성토했다. /나명주기자 mjna@

## 재향군인회·진보연대 등 日 망동 규탄

미국 최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과정에서 극심한 대립 양상을 보였던 보수-진보 단체들이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일본의 억지 주장 앞에서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광주·전남 시민사회단체에 이어 종교단체, 재향군인회, 기초의회 등도 일본의 독도 영유권 교과서 명기에 반발하는 등 규탄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광주기독교교단협의회는 16일 오후 광주시 누문동 광주제일교 학생운동기념탑 앞에서 발표한 시국선언문을 통해 “일본 정부는 영유권 침탈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광주·전남 재향군인회’는 16일 성명서를 내고 “일본의 영유권 주장은 단순한 독도 침탈 기도가 아닌 우리 주권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정부는 일본 정부의 이 같은 군국주의 부활 시도

에 대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 동구의 의원들도 이날 오전 의회 앞 광장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일본 정부의 영유권 주장은 제국주의의 부활 시도이며 제2의 침략행위”라고 비난했다.

광주·전남 진보연대, 전교조, 광주YMCA 등 진보적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15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일본과의 교류 활동 중단을 촉구했으며 17일 재한절에 열리는 미국산 최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서도 일본 규탄대회를 갖기로 하는 등 지역 각계의 비판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민주노총 조합원 100여명은 16일 오전 서울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의 영토 주권 도발규탄 및 재발방지 촉구 집회’를 개최하고 일본의 제국주의적 음모와 정부의 대일 외교정책을 비판했다. /최권일·이은미기자 cki@kwangju.co.kr



다중의 건축·산업·주택 KCC

(주) 금복시스템

개인주택, 아파트 발코니

신규사시 제작 및 상담·시공

▶ 서울본사 : 02) 3445-0943

▶ 광주본점 : 061) 337-0571

## 홀짝제 12% 안지켰다

### 광주환경운동연합 조사

공공기관 승용차 홀짝제 적용 첫날인 지난 15일 광주지역 공공기관의 준수율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적정온도(27도)를 지키지 않은 곳도 발견됐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이 지난 15일 광주 시내 공공기관 50여곳의 홀짝제 실행 여부를 조사한 결과 1천136대 중 12.1%인 138대가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승용차 요일제'(2번과 7번) 위반차량의 경우에는 훨씬 높은 위반율을 보였다.

홀짝제 조사의 경우 전체신청과 광주 시내 4개 우체국이 119대 중 15.9%인 19대가 위반해 가장 높은 위반율을 보였으며, 광주시청 및 5개 구청 은 793대 중 99대(12.4%), 광주시 교육청과 동·서부 교육청은 152대 중 14대(9.2%)가 위반 차량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기관 내 실내온도 27도 이상 유지와 엘리베이터 4층 이하 운행 금

지 등의 요구가 대책은 비교적 잘 지켜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부 구 의회 의정실과 우체국은 24.4도 까지 온도가 낮게 측정되기도 했다.

광주시청 및 5개 구청의 평균온도는 28.9도, 시의회 의정실 27도, 시교육청 및 동·서부 교육청 28.5도, 전남체신 28도로 적정온도를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강필상기자 kps@

**김복일 서구의원 항소 기각 형 확정판 의원직 상실**

광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배형원)는 16일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김복일(45) 광주 서구의회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김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받아들였다.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김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최권일기자 cki@

## 광주 학운위원 534명 “미 쇠고기 급식 반대”

광주시내 초·중·고교 학교운영위원들이 학교 급식에 미국산 쇠고기를 사용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선언했다.

광주지역 108개 학교 학운위원 534명은 16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 민주 의 종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생 건강권 확보와 미국산 수입 쇠고기 사용금지를 위한 학운위원 선언문’을 내고 광우병 위험에 노출돼 있는 미국산 쇠고기를 학교 급식에서 사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학교급식에 대한 형식적 검증, 도축 및 등급판정 확인서 위·변조 등이 빈번한 현재로서는 광우병에 대해 안심해도 좋다는 정부의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학운위원들은 또 학생들의 건강과 식품 안전성을 고려해 친환경 우수 농산물 사용을 위한 제도를 마련할 것과 재정지원, 미국산 쇠고기 납품 금지, 급식검수 활동 강화 등을 교육당국과 납품업체에 촉구했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 교총·전교조 2학기부터 '독도 계기 수업'

### 광주·전남교육청 독도 교육 강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맞서 학교 현장의 독도 관련 교육 활동이 강화된다. 또 촛불집회 과정에서 극심한 대립 양상을 보였던 보수-진보 교원 단체들도 일본의 억지 주장 앞에서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남도교육청은 16일 공문을 통해 사회 등 모든 교과 교육 시간에 “일본의 주장은 사실과 역사 틀을 벗어난 허구로 영토침탈 행위에 버금가는 망동”임을 적극 알리고 학교장 훈화나 담임의 조화·종례 시간에 이 사실을 강조하도록 했다.

이어 독도사랑 글짓기와 표어 포스터 그리기, UCC 제작, 이메일 보내기 등 독도 사랑 행사를 열고 사이버 독도역사관(www.dokdohistory.com) 등 독도 관련 사이트를 안내하는 등 적극 지도하도록 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여름방학이 다가오기 때문에 별도의 공문을 내리지 않는 대신, 방학 동안

활동하게 될 15명 규모의 역사교사 모임을 구성해 독도 문제를 포함한 동북공정 등 주북권의 역사 왜곡과 관련한 자료집을 만들어 2학기부터 전 학교에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교원단체들도 독도 관련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단체들은 올 2학기부터 '독도 계기 수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교총은 16일 “올 2학기 개학과 동시에 독도 계기수업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교사들이 계기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제작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교총은 전교조와 계기수업을 공동으로 진행하는 방안과 전교조 및 북한의 교원단체와 독도에 관한 공동 성명을 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전교조도 올 2학기부터 독도 계기수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계기수업 자료를 만드는 작업에 착수했으며 교총과 함께 공동수업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성필기자 camus@

롯데 정수근 폭행 구속 위기

상대말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 정수근(31)이 만취 상태에서 경비원과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구속될 위기.

○정수근은 16일 새벽 3시20분께 부산 수영구 광안동의 한 주상복합건물 주차타워 앞에서 건물 경비원 신모(54)씨와 시비를 벌이다 주먹과 발로 신씨와 동료경비원 김모(30)씨를 때렸으며, 인근 경찰 지구대에 연행된 뒤에도 하도 순경을 폭행했다는 것.

○경기 후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진 정수근은 “모든 것은 야구장에 가서 설명하겠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하겠느냐”고 고개를 떨구었으나, 경찰은 이날 정수근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 /연합뉴스

**재혼만 10년!**

영복출발

www.527-3388

포어 커릴 매니저 직권 구입

광주·전남 기능장학

大山프리모님녀가발

가발

최신제품 70만원

초슬림!!

귀하의 분위와 인격을 높여주는 영리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www.527-3388